

한국은 한참 꽃들이 피어서 아름다운 계절이겠군요. 이곳 인도는 벌써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최고의 온도를 향해 마치 기관차가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 달리듯이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산 지 꽤나 오래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곳의 더위가 조금 저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

요즈음은 이 메일로 기도 편지를 보내면 열어 보시는 분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시간의 SNS 인 카톡이나 페이스 북 등이 소식 전하기가 좋은데 사실 페이스 북은 너무 노출이 많아 보안 상 허술하여서 개인간의 소통인 카카오톡이나 WhatsApp 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카톡 아이디는 **MohaBBatindia** 이고 WhatsApp 전화 번호는 **+91 9810961377**번 입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저희들의 소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카톡을 연결 시켜 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에게 카톡 아이디를 알려 주시면 제가 먼저 연결해서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여행을 가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아직도 교회가 없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저희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하고 팀을 짜서 전도 여행을 연속 3번을 다녀 왔습니다. 갈 때



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터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 날씨가 더워져서 더 이상 여름 기간 동안은 전도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더위가 수그러들면 다시 전도 여행 팀을 만들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 하려고 합니다. 전도 팀들이 더 잘 준비하고 지치지 않는 전도의 욕구가 샘 솟으며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약 2000여명이나 됩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 캠프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지난 1월 말에는 한국에서 의료팀이 방문을 하여 저희 전체 사역에서 3일 동안 약 2000여명의 아이들과 1000여명의 어른들이 건강 검진과 질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작년보다도 훨씬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들이 매 3개월마다 한번씩 기생충 약을 먹고 있고



저의 센터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은 매일 영양제를 먹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질병이 많이 없어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료팀이 와서 치료와 건강 검진을 해 주면 온 마을의 축제가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건강검진과 진료를 통하여 육체만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침례 식과 생명의 물 파기(우물)

지난 3월 초에는 저희들이 개척한 시골의 두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47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매번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곳 인도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내어 놓고 개종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표시라서 모두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 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하실까 생각하면 저 또한 풍성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우물을 파주는 사역도 하였습니다.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키로를 걸어가야 구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150미터 이상의 지하의 암반수를 파 줌으로 마을의 약 3000여명의 사람들이 한여름 내내 가뭄에도 식수 걱정을 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후원자 몇 분이 헌금을 해 주셔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물을 파면서 집회도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것은 물이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암송대회

지난 3월 27일은 우리 사역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암송대회를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전체 모든 사역지의 사역자들과 교인들 모두에게 신구약 전체를 1년에 3번 완독, 신약을 3번 완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어른 아이들 모두 합쳐서 47명이 성경 암송대회에 참석하여 가장 중요한 12구절을 영어와 힌디로 암송하였습니다. 참석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기 시험과 암송을 통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매달 이 암송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4월에는 24일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암송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성경 암송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bJXiX7oVw&t=71s>

사랑하는 아들 디팍의 죽음

지난 달에는 저의 지난 사역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가지야바드 센터에 저희 센터가 처음 시작 할 때부터 한번도 빠



짐없이 매일 가장 먼저 정말 열심히 나오고 또 열심히 공부했던 11살 된 디팍이라는 아이가 개에 물려서 광견병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 집회를 가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안타깝고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주사 몇 번만 맞으면 해결될 것인데 미처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못해서 아이가 사망한 것이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친척들도 무지하여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화장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아이들을 잘 돌보고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가정을 위하여 평안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디브리핑 상담 세미나

초교파 연합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올해 첫 사업으로 인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디브리핑 상담 세미나를 지난 29일-31일까지 가졌습니다. 한국의 MCC 대표님이신 이경애 선생님 외 전문 상담가인 3분이 오셔서 50여명의 선교사님들에게 개인 상담과 디브리핑, 중 노년의 삶에 대한 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강의와 쉼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하여 모금하는 것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의 회복과 기쁨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인도선교사협의회 사역으로 6월의 한국과 미국에서 있을 "인도선교 세미나"와 10월에 있을 "사역 오리엔테이션" 등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또 여전히 모금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주신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잘 사용하여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역들을 위한 모금이 충분하게 채워 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특별한 이 사역을 위하여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명의 형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다.

올해도 너무 감사하게 12학년을 졸업한 G와 B형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11살 때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신실하게 잘 자란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G 형제는 부모가 아주 강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생명을 내어 놓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여 신학교를 간 형제입니다. 두 형제가 신실하게 신학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두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후원자를 구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이야기

나단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지는 이태리 로마의 UN에서 근무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은 유엔 기구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한국 생활에 조금 불편해 하는 것 같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의 좋은 예절과 문화 등을 익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학업 성적은 잘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명랑하고 애교가 많아서 여전히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봄 방학 동안 우리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에게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바울, 이루디아, 나단, 은지, 갈렙 드림